

2016년 9월 12일
서일본여객철도주식회사

“WEST JAPAN”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간사이 공항역의 판매 기능을 증강합니다!

간사이 국제공항의 국제선 외국인 여행객 수(2015년도)는 연간 역대 최고인 1,100 만명이고 올해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간사이 공항역을 현관문 삼아 ‘간사이 지역’, ‘서일본 지역’을 둘러보기 위해 방문하는 여행객들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올해 3월에 일본 정부가 ‘내일의 일본을 이끄는 관광 비전’ 속에서 새로운 수치 목표를 세워 발표하고 간사이 국제공항에서는 새로운 터미널 개업이 계획되어 있는 등, 향후 새로운 환경 변화가 예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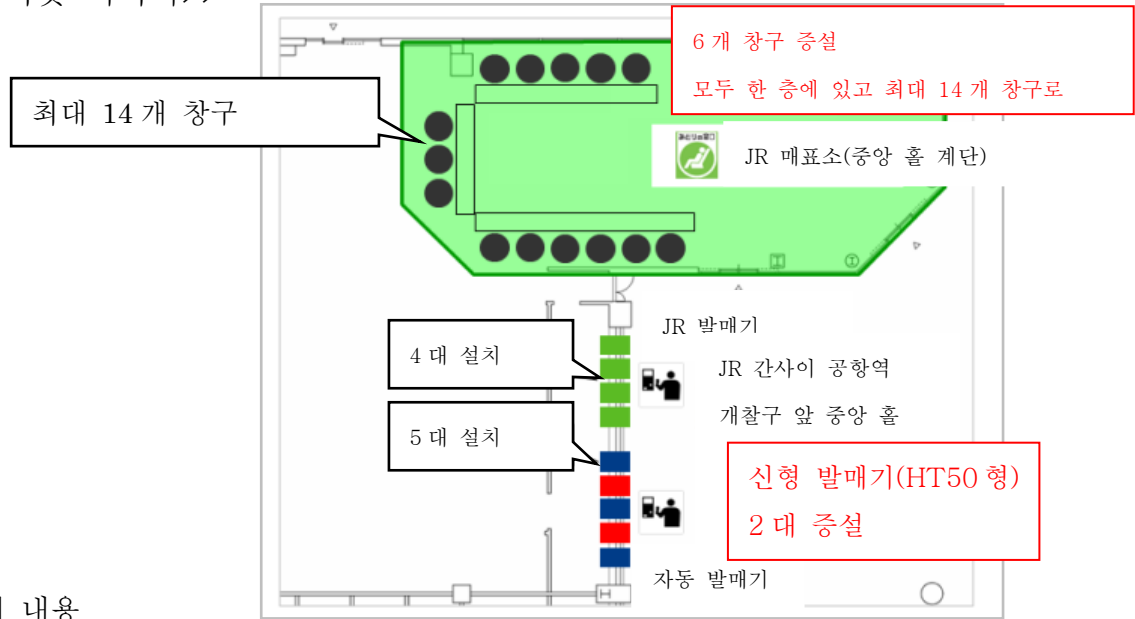
JR 서일본에서는 ‘중기 경영 계획 2017’의 ‘해외 관광객들을 수용할 충분한 태세’의 일환으로 간사이 공항역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2016년 8월부터 ‘JR 매표소’의 위층에 ‘해외 고객 전용 창구’를 새로이 설치하고 영어 및 중국어 등에도 대응할 수 있는 스태프를 배치했는데, 매우 많은 고객님이 이용해 주고 계시며 그 이용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외에서 도착하는 많은 고객님이 JR 서일본의 간사이 공항역을 더욱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판매기능을 증강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JR 매표소’ 실내 이미지>>



<<레이아웃 이미지>>



1. 실시 내용

‘JR 매표소’의 기능 증강

- (1) 모든 창구를 한 층에 배치, 최대 14 창구로!

현재는 위층을 포함해 최대 8 개 창구(5+ 위층 3)가 배치되어 있으나, 추가로 6 개 창구를 증설해 최대 14 개 창구로 늘림과 동시에 모두 한 층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리뉴얼합니다.

- (2) 이제는 일부 창구에서 숙박시설 예약이 가능!

일부 창구에서는 해외에서 예약된 승차권 종류를 교환하는 투어 데스크로서의 기능을 확충해 새로이 숙박시설을 예약(당일 예약 포함)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투어 데스크는 폐사 그룹의 (주)닛폰여행과 제휴해 운영합니다.

- (3) 해외에서 오신 고객님께 충실히 대응!

지금까지 영어 및 중국어 등에도 대응할 수 있는 창구는 최대 3 개 창구였으나, 대응 가능한 창구를 더욱 늘려 해외에서 오신 고객님께 충실히 대응토록 합니다.

※상기 창구 수는 성수기 같은 경우의 최대 수이며,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타 : ‘신형 발매기(HT50 형)’ 증설

현재는 ‘신형 발매기(HT50 형)’ 3 대와 ‘JR 발매기’ 4 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그 중 ‘신형 발매기(HT50 형)’를 2 대 증설해 5 대로 늘립니다.

‘신형 발매기(HT50 형)’... 티켓 구입 및 IC 카드 ‘ICOCA’의 신규 발매·충전에 더해 영어·중국어·한국어로 조작을 안내하거나 역 이름을 알파벳으로 입력해 티켓을 구입할 수 있는 기능 등을 갖춘, 매우 편리한 발매기입니다.

(‘JR 발매기’에도 영어·중국어·한국어로 조작을 안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2. 실시 시기

2017년 3월(예정)